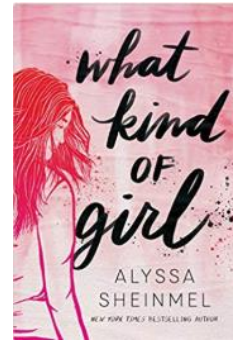


## FICTION

제목 : WHAT KIND OF GIRL  
가제 : 마야는 어떤 아이일까  
저자 : Alyssa Sheinmel  
출판사: Sourcebooks Fire  
발행일: 2020년 2월 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넘치는 스릴과 함께 페이지를 계속 넘기게 하는 소설”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작가의 전작 『A Danger to Herself and Others』에 대한 서평
- \* “정신 질환과 치료 과정을 정중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쓴 책” - 「커커스 리뷰」, 작가의 전작 『A Danger to Herself and Others』에 대한 서평

학교마다 전교생이 다 알고 대부분이 호감을 갖는, 인기 많은 아이가 있다. 여러모로 능력도 뛰어나고 선생님들까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평소에 좋은 마음으로 그를 보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마야가 남자친구 마이크로부터 벌써 수개월째 폭행을 당했다고 당당히 밝혔을 때 돌아온 반응은 ‘의심’이었다. 마이크가 그럴 리 없다고, 또래 남학생들이 늘 심한 성적 농담이나 욕설을 입에 올려도 절대 같이 떠드는 법이 없고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는 아이가, 형편이 썩 좋지 못해서 학비에 보태려고 툼툼이 아르바이트도 하는 성실한 학생이 여자를 때릴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피어난 의심은 마야를 따라다닌다. 어릴 때부터 마야와 마이크가 둘 다 절친한 친구였던 주니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야의 고발을 아예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엄청난 일을 가장 가까이 지낸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왜 한 번도 그런 감새를 눈치챈 적이 없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룬 이 소설은 뉴스에서 단 몇 줄로 정확한 사실만 보도되는 사건 너머에 얼마나 복잡하고 애매한 감정과 정황이 숨어 있는지, ‘사랑’이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한 이유가 집착, 애증, 소유욕이라는 어두운 감정과 얼마나 가까이 맞붙어 있는지 마야와 주니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스스로 폭행을 고발하고도 그래서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 계속 갈등하는 마야와 그런 친구를 의심하면서도 마이크의 퇴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교생 시위를 주도하는 주니,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폭력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큰 흉터를 남기는 오명을 이야기한다.

마이크가 처음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야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전교 여학생 대부분이 흠모하는 인기 많은 남학생, 장래가 유망한 육상선수, 어른들이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다정한 마이크는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예쁘고 몸매도 좋고 인기도 많은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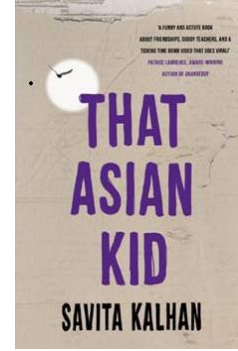
을 사귄 수 있을 텐데 딱히 존재감도 없고 뚜렷하게 잘 하거나 내세울 구석도 없는 자신에게 그렇게 불쑥 다가온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게다가 둘은 한 동네에서 워낙 오래 살아서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옛날부터, 거의 17년이라는 짧은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했다. 그러니 가족처럼 익숙하고 잘 아는 누군가가 뭔가 다른 시선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마야는 데이트를 신청하고 우물쭈물 기다리는 마이크의 얼굴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둘은 6개월을 별 탈없이 연애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랬다. 4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에 일어난 마야가 이틀 전 토요일에 벌어진 일을 교장 선생님께 곧장 이야기하러 가기 전까지 누구도 마야가 겪어야 했던 일을 알지 못했다. 토요일에 마이크가 휘두른 주먹에 정통으로 맞은 마야의 눈은 월요일이 되자 화장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을 만큼 시커멓게 멍이 들어버렸고 심상치 않은 그 흔적을 거울로 가만히 들여다보던 마야는 또 거짓말하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마야는 마이크가 늘 그래왔듯 차를 몰고 집 앞에 데리러 오기 전에 학교로 달려가 교장실로 직행했다. 이런 적이 또 있었냐고, 부모님께 말해봤냐고,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 교장선생님이 물었을 때에야 마야는 이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그러나 후회했을 때는 이미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힌 후였다.

마야의 고발을 가장 깊이 의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야의 단짝인 주니였다. 처음에는 마야가 맞았다는 사실에 격분했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자신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당장 그만두게 하고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여태 아무 말도 안하다가 갑자기 폭행을 여러 번 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이크가 마야의 남자친구이기 전에 주니의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 마이크에 대한 감정을 영 정리하지 못한 듯한 마야의 행동도 이런 의심에 큰 몫을 했다. 결국 주니는 다른 여학생들과 힘을 모아 학교 측에 마이크의 퇴학을 요구하는 시위를 준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왜 여태 참고 지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시위를 불편해하는 마야의 태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의아한 반응을 일으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의심하기 시작한다. 작가는 마야와 주니, 그리고 마야를 오래 전부터 지켜본 또 다른 친구의 시선을 통해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무엇이 '좋은' 사랑이고 무엇이 '나쁜' 사랑인지 고민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등장 인물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폭력과 이혼,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거식증과 폭식증, 불안 장애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일상도 담담한 시선으로 드러내면서 그 고통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까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인상적으로 그린다.

#### <저자 소개>

알리샤 셰인멜(Alyssa Sheinmel)은 『A Danger to Herself and Others』와 『Faceless』 등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여러 편 쓴 작가다. 그 밖에 저서로는 『The Haunting of Sunshine Girl』 등이 있다.

제목 : THAT ASIAN KID  
가제 : 그 아시아인 아이  
저자 : Savita Kalhan  
출판사: Troika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분량 : 336쪽  
장르 : YA 소설



**\* “도덕적인 딜레마가 주는 혼란을 생생하고 흡입력 있게 그린 소설. 결단력 있는 주인공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게 될 것이다” - 『I am Thunder』의 작가 무하마드 칸**

공부에 몰두해야 할 학생에게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확신이 드는 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이 또 있을까?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치졸한 이유 때문이라면? 지반에게는 영문학이 그런 안타까운 과목이 되었다. 영문학 선생님의 따가운 시선과 표정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혐오감을 지난 18개월 동안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리브스 선생님은 지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싸늘한 반응은 물론 영 거슬린다는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반응을 느끼고도 지반은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과제도 최선을 다해 완료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부당한 점수와 평가였고, 지반이 항의할수록 그리브스 선생님의 분노만 부추기는 악순환만 일어났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터전을 옮긴 지반의 부모님은 명석한 머리와 성실함으로 지반과 누나,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할머니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누나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 옥스포드 의대에 들어간 만큼 지반의 가족들은 대체로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누나만큼 잘 하진 못해도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던 만큼 지반은 그리브스 선생님의 평가를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동시에 이반은 선생님이 왜 그토록 자신을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반이 인도인, 유색인종이기 때문이며 그리브스 선생님은 티를 안 내려고 나름 애쓰지만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임을 이반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반은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학생을 피부색으로 교묘하게 차별해온 선생님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릴 강력한 무기가 될 일이 지반의 코 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공기가 퐁퐁 언 것처럼 추운 1월의 오후, 지반은 할머니댁으로 이어진 숲 속 지름길에서 잠깐 서서 담배를 하나 입에 물었다. 15분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다 인적이ra곤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몰래 흡연하는 이 시간은 지반이 하루 중 가장 아끼는 순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멀리서 누군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잠깐의 휴식도 금새 끝나고 말았다. 서둘러 담배부터 끈 지반은 그 웃음소리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에 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상대방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기로 한다. 예상대로, 웃음 소리의 주인공은 지반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역사 선생님이었다. 담배를 서둘러 끄느라 주변에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으니 들통나면 한바탕 잔소리를 들을 판이라 지반은 일단 몸을 숨긴다. 무성한 수풀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런 선생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지반은 선생님 옆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놀랍게도 동행인은 그리브스 선생님이었다. 왜 두 사람은 넓은 길을 놔두고 왜 하필 이 으스스한 숲으로 들어왔을까? 지반은 돌이 직감적으로 썩 뗏뗏하지 않은 관계임을 직감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걸던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자연히 지반의 귀에도 들렸다. 그리브스 선생님은 그린 선생님에게 오늘 아침에 교장실에 불려가서 경고 비슷한 것을 들었다며 꾸짖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자신이 학생들을 인종에 따라 차별한다고 고발했고 교장 선생님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니 조사를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반은 갑자기 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알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숨죽여 보고 듣고 있는 이 장면을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그 시점까지만 해도 지반은 잠시 후, 그린 선생님이 흐느끼는 그리브스 선생님의 다정하게 팔을 쓰다듬어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근처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리브스 선생님의 외침과 함께 벌떡 일어나더니 지반 가까이에서 서 있는 굵직한 나무 사이 평평한 공간으로 갑자기 걸어왔다. 그리브스 선생님이 코트 단추를 열기 시작한 순간 지반은 달아나고 싶었지만 온 몸이 얼어붙은 상태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대는 심장을 누르며 그대로 뒤에 이어진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다 보고 들어야했다. 카메라를 든 손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던 바람에 두 선생님의 격렬한 행위는 지반의 전화기에 전부 기록됐다. 유부남인 그린 선생님은 그리브스 선생님과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휘말리다니, 지반은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아내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그리브스 선생님의 잔소리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린 선생님의 듣기에도 민망한 설전까지 모두 들은 지반은 두 사람이 시간에 쫓겨 마침내 사라진 후에야 풀숲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그리브스 선생님으로부터 당한 그동안의 설욕을 한 방에 씻을 수 있을 만한 무시무시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고심하던 지반은 그리브스 선생님의 뻔뻔하고 치졸한 차별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고결한 척, 합리적인 척 콧대만 높은 선생님의 위선을 까발리되 그린 선생님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반과 친구들은 그리브스 선생님의 얼굴만 나오도록 영상을 편집한다. 지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산디의 권유대로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학교 전체에 소문이 금세 퍼질 것이고 지반을 비롯해 그동안 인종차별에 시달린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 즉 그리브스 선생님이 두 번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촬영자가 지반이라는 사실이 금방 폭로되면서 상황은 지반의 예상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크게 악화된다. 인권과 도덕적인 기준, SNS의 무서운 파괴력을 흡입력 있게 엮어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사비타 칼한(Savita Kalhan)은 웨일즈 대학교에서 정치와 철학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오른 『The Girl in the Broken Mirror』가 있다.